

<도쿄전력 후쿠시마 제 1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따른 방사선의 영향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>

후쿠시마 제 1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해 여러분께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.

간 나오토 총리가 3 월 15 일에 발표한 국민을 향한 메시지에서 후쿠시마 제 1 원자력발전소로부터 20~30 km 범위를 실내 대피지역으로 권고함에 따라 이바라기현에 인접하는 「이와키시」의 일부도 그 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.

본 현에서는 이번 사고로 인해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가반형방사능검출기를 3 월 13 일 이후부터 기타이바라기시 등에 설치하고 관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수치는 3 월 16 일 정오 현재, 최대 15 마이크로시벨트(0. 015 밀리시벨트) /시간 정도로 측정되고 있습니다.

이 수치는 통상시에 비하면 약 300 배 정도이지만 흉부 X 레이 촬영시(0. 05 밀리시벨트)의 3분의 1 정도의 레벨이며 건강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.

이 0. 015 밀리시벨트가 어느 정도의 레벨인가를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일본인이 1 년간에 자연계로부터 받는 방사선 양(1. 48 밀리시벨트)의 100 분의 1 정도로서 매우 작은 레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.

또 비가 내렸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관측되는 방사선의 수치가 상승한다고 하지만, 원래 이바라기현내에서 관측되어진 수치는 최대일 경우라도 0. 015 밀리시벨트/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일 그 2 배가 된다고 해도 걱정할 만한 레벨이 아닙니다.

물론 비를 맞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, 만일 비를 맞는다고 해도 극단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레벨이라고 생각합니다.

또 3 월 15 일에는 후쿠시마 제 1 원자력발전소 3 호기와 4 호기 사이에서 400 밀리시벨트/시간의 방사선이 관측이 되어 인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는 레벨이라고 보도가 되어 많은 분들이 불안을 느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.

그렇지만 방사선의 힘은 거리의 2 승에 반비례 하므로 후쿠시마 제 1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약 80 km 떨어진 기타이바라기시에서는 그 힘이 극히 작은 레벨이 되므로 인체에 끼치는 영향은 없다고 판단됩니다.

이와 같이 이번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 1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따른 이바라기현내의 방사선 영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어떤 행동이 필요할 만한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부디 냉정히 행동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.